

이란 통신 산업의 현황과 전망

I. 산업 현황	1
II. 산업 구조	6
III. 산업의 최근 동향	9
IV. 향후 전망	13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19

확인 : 소장 권우석 (3779-5701)
wskwon@koreaexim.go.kr

작성 : 선입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I. 산업 현황

□ 이란 통신시장, 경제제재 해제 후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주목

- 이란의 통신시장은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사업 기회 제한, 서방의 문화적 영향을 경계하는 이란 정치지도자들의 신기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인해 국제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음.
- 그러나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의 통신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국제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란의 젊은층은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양호하고 신기술에 민감하며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애용하는 편임.
- 이미 2013년 이란은 이집트를 제치고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최대 규모의 통신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1. 이동통신 부문

□ 이동통신 시장은 3G/4G 서비스 개시로 성장세 지속

- 이란의 이동통신은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중 3G/4G 서비스의 개시 이래 이동통신 시장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이동통신 서비스의 총 가입자 수는 2014년 9월 1억 854만 명에서 2015년 9월 1억 2,587만 명으로 16.0% 증가하였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도 2014년 9월 138.9%에서 2015년 9월 159.1%¹⁾로 20.2% 포인트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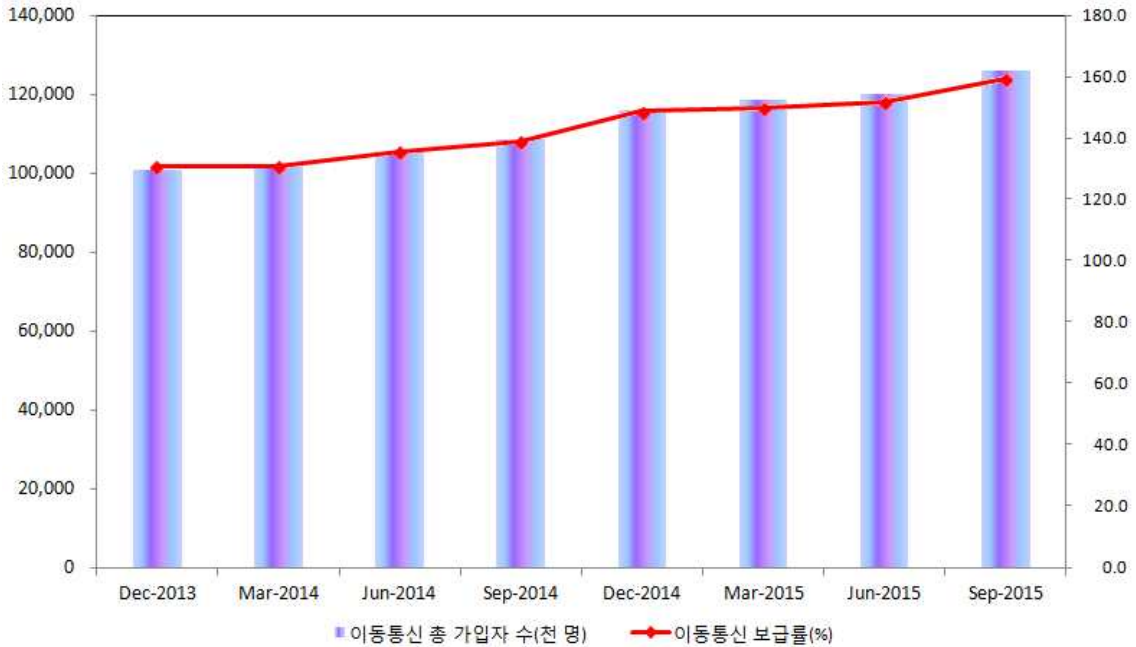
□ 이동통신 시장은 MCI와 MTN Irancell에 의해 양분

-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란이동통신회사(MCI)와 MTN Irancell(남아공 통신기업 MTN Group과 이란의 합작기업)에 의해 양분되고 있음.
- MCI는 2015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1위(59.1%)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신 서비스가 미비한 농촌/지방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

1) 동일인의 선불폰 서비스 중복 가입 등으로 100%보다 높음.

- 반면 시장점유율 2위(38.3%)의 MTN Irancell은 부유한 도시 지역에서의 서비스에 집중하여, 시장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가입자별 평균수익(ARPU)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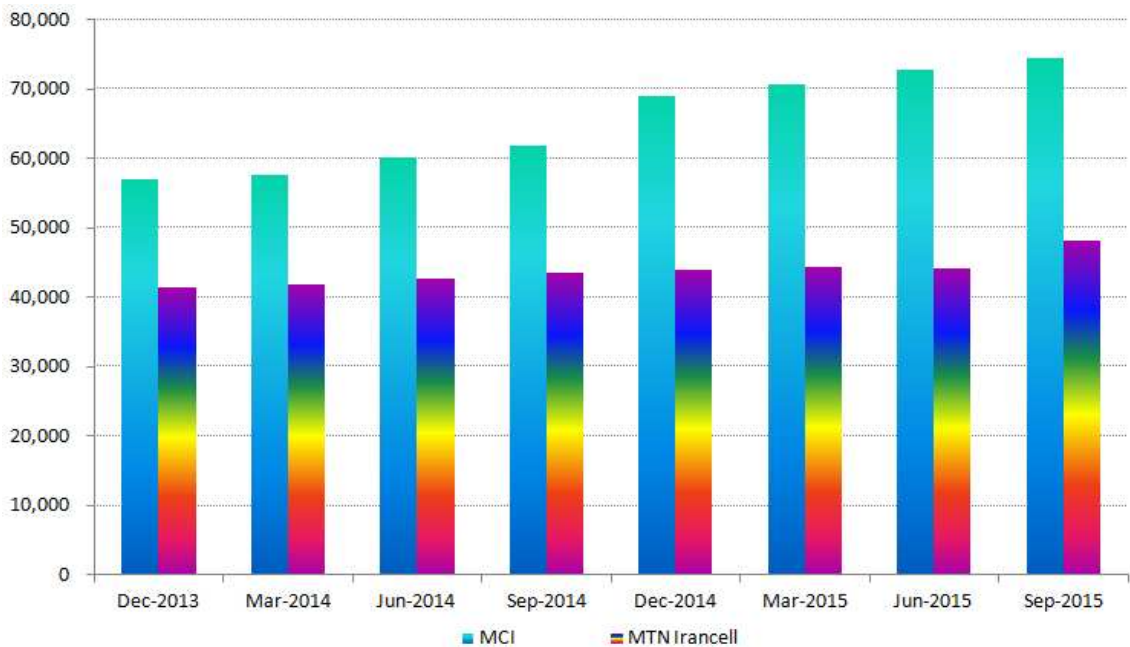
<그림 1> 이란의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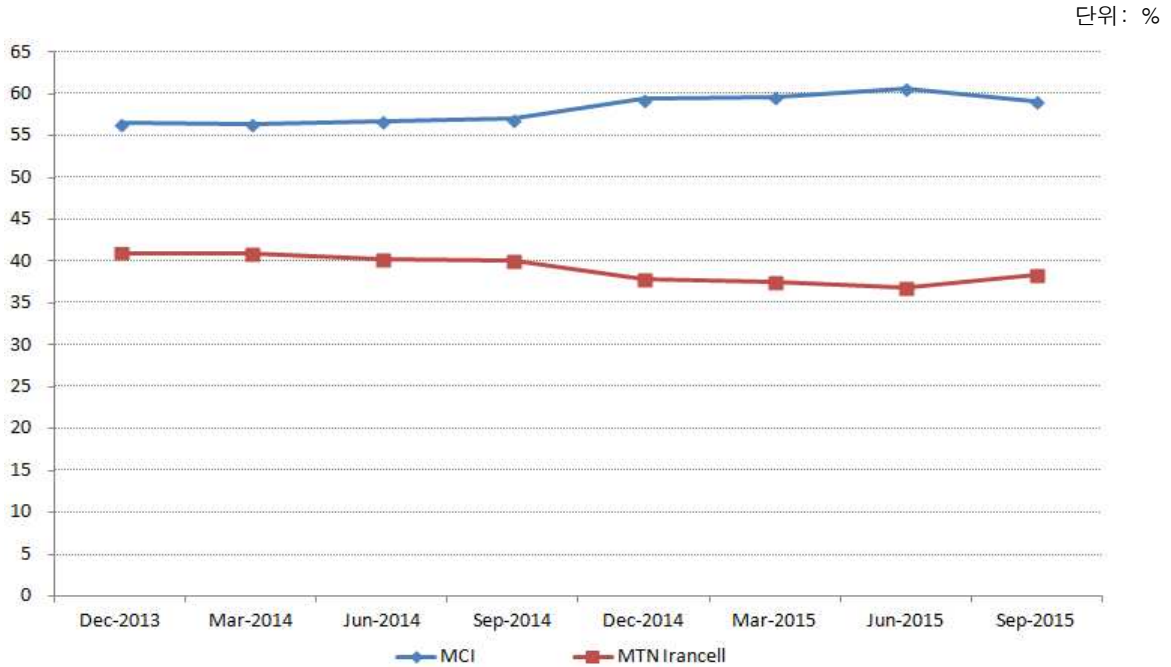
<그림 2> MCI와 MTN Irancell의 최근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BMI

<그림 3> MCI와 MTN Irancell의 최근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BMI

□ G/4G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시장 성장 가속화 전망

○ MTN Irancell이 2014년 8월 3G 서비스를, 12월 4G 서비스를 각각 개시한 데 이어 MCI도 2015년 2분기 중 3G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3G/4G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며 시장의 성장에 가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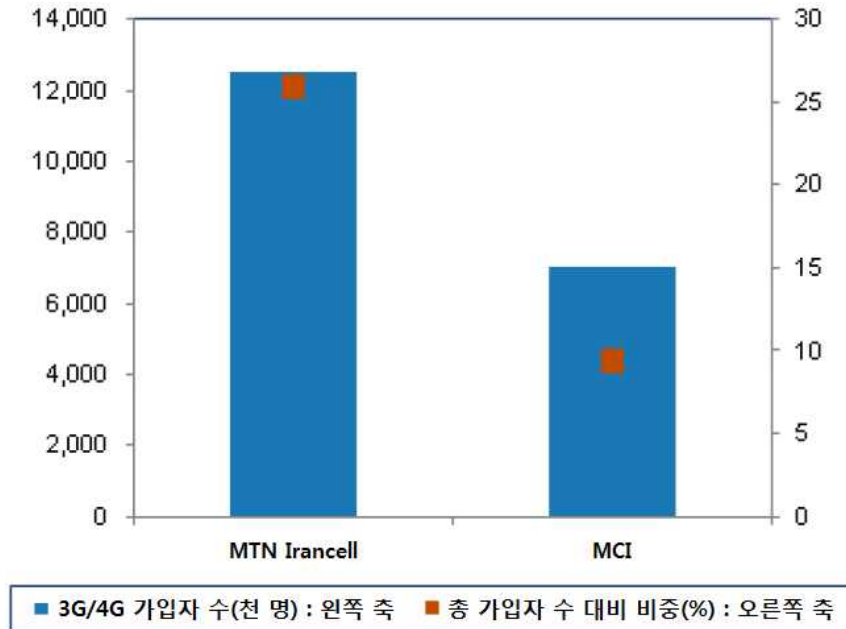
— MCI와 MTN Irancell 모두 3G/4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네트워크 확장에 많은 투자를 실행하였으며, 3G/4G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의 빠른 확장에 주력하여 양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 이란의 3G/4G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4년 말 99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말 2,3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마트폰 사용자 수와 고급 데이터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2020년 말까지 4,9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제재로 인한 높은 가격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2015년 이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6%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란 시장에서 3G/4G 서비스의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MTN Irancell은 이란 내 20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3G 서비스를, 5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비스 가능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그림 4> MTN Irancell과 MCI의 3G/4G 서비스 가입자 수 (2015.9월)



자료: BMI

2. 유선통신 부문

□ 국영기업 TCI가 사실상의 독점 체제 유지 중

- 이란의 유선통신 시장은 국영기업 이란통신회사(TCI) 및 10여개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TCI는 유선전화 서비스 독점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이란 정부는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를 민영화하여 다른 기업들도 경쟁하고 있음.
 - TCI의 독점으로 인해 유선전화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향상의 인센티브가 부재한 실정임.
-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이동전화 서비스의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유선전화 가입회선은 2012년 말 2,747.8만 회선에서 2015년 말 3,004.9만 회선으로 3.0%의 CAGR²⁾을 시현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됨.

2)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즉 기하평균)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

□ 초고속(broadband) 인터넷 시장도 성장 추세

- 이란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2014년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22.7% 증가하여 45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54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초고속 인터넷 사업권자는 일반적으로 최초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PAP(private access providers), 도매상에 해당하는 ISDP(internet service distribution providers), 그리고 소매상에 해당하는 일반 ISP(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3단계로 구분됨.
 - PAP는 현재 국가적 규모의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배치·운용할 수 있는 TCI를 포함한 11개가 영업 중임. ISDP는 주(州) 단위로 영업을 수행하며, PAP와 일반 ISP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고 있음.
- 대부분의 PAP, ISDP들은 ISP 사업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의 ISDP 및 1,200여개의 ISP가 등록된 사업권자로 영업하고 있음.
 - 현재 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사업권자들이 활발하게 영업 중인 것은 아니나, BMI는 12개 이상의 사업권자들이 최종 사용자들(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유럽과 연결되는 광통신망(EPEG) 운용 중

- 러시아 Rostelecom, 영국 Cable & Wireless Co., 오만 Omantel, TIC의 컨소시엄에 의한 Europe-Persia Express Gateway(EPEG) 프로젝트는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로, 2011년 6월 계약이 체결되어 2012년 12월 운용을 개시하였음.
- EPEG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여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거쳐 오만에까지 이르는 총 연장 1만 km 규모의 광통신망임.
- 동 네트워크의 개통에 따라 이란의 국제통신망 대역폭은 72Gbps에서 82Gbps로 확장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란 정부는 이를 100Gbps 수준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이란 정치권 내부의 의견 대립

- 이란은 2014년 초부터 중국의 도움을 얻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고 필터링하는 국가정보네트워크(NIN)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의 보수파 이슬람 성직자들은 Hassan Rouhani 대통령이 이끄는 현 이란 정부의 3G 서비스 시장의 확장 추진에 극력 반대하고 있음.
 - 보수파 성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들이 서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민들이 이슬람 신앙에 도전하는 불경을 저지르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란의 사법당국은 2015년 1월 인터넷 기반 음성통화 애플리케이션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이란 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명령하였으나, Rouhani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II. 산업 구조

□ 유선통신은 TCI의 독점, 이동통신은 MCI와 MTN Irancell의 복점(duopoly)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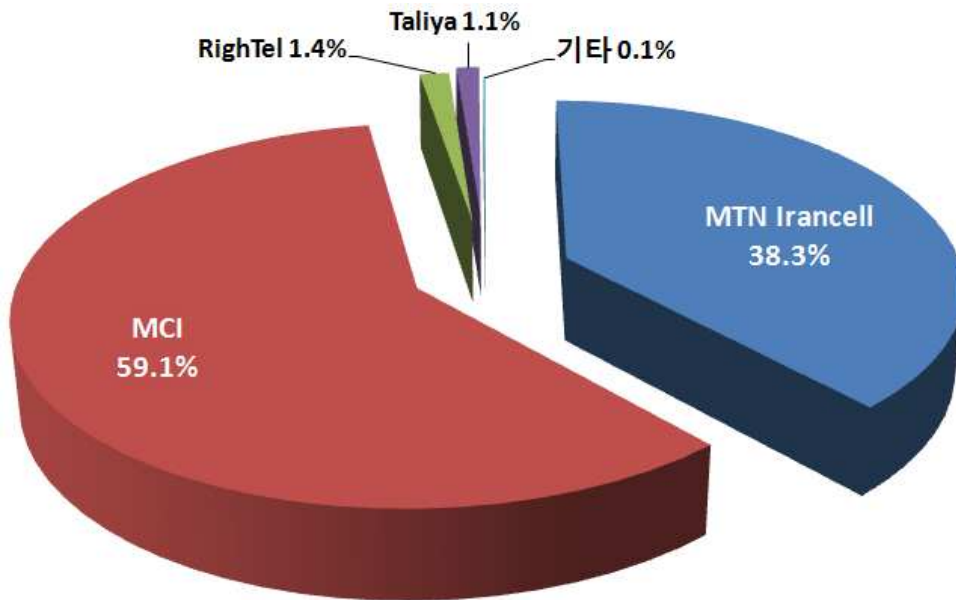
- 유선통신 부문은 음성통화의 경우 TCI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 MTN Irancell을 비롯한 여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TCI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동통신 부문은 MCI와 MTN Irancell의 복점(duopoly)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바, 지난 5년간 양사의 매출액은 이란 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을 계속 점유해 오고 있음.
 - 2015년 9월 기준 이란 이동통신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MCI가 59.1%, MTN Irancell이 38.3%로 양사 점유율의 합계가 97.4%를 기록하였으며, RightTel이 1.4%, Taliya가 1.1%, 기타 기업들이 0.1%에 그쳤음.
 - 이란 사회안전기구(ISSO) 산하 기업인 RightTel은 2010년 4월 사업인가를 받고 3G/4G 서비스 사업권도 함께 취득했으나, 2011년 11월에야 제한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표 1> 이란 통신시장의 주요 참여자들

회사명	소유구조	사업부문
이란통신회사(TCI)	Etemand Mobin(50.01%), Equity Shares Brokerage (20%) 이란 정부 (19.9%) TCI 직원(5.09%), 기타(5%)	유선통신, 이동통신, 데이터 운용
이란이동통신회사(MCI)	TCI(90%), 기타(10%)	유선통신, 이동통신
MTN Irancell	MTN(49%), 이란전력개발회사(51%)	이동통신, 인터넷
Taliya	Rafsanjani 산업단지(RIC)	이동통신
이스파한 이동통신회사(MTCE)	이스파한주 통신회사(100%)	이동통신
Kish 통신회사(TKC)	LibanCell(100%)	모바일 인터넷
Pars Online	100% 민간 소유	인터넷
Datak Telecom	100% 민간 소유	인터넷, VoIP

출처: BMI

<그림 5> 이란 이동통신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 (2015년 9월 기준)



자료: BMI

□ 이란통신회사(TCI) : 유선전화 부문의 독점 사업자

○ 1972년 이란전화회사(Telephone Company of Iran)의 후신으로 설립된 이란통신회사(TCI)는 2005년 7월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하에 33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유선통신, 이동통신, 기간망통신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모회사(parent company)로 개편되었음.

— 이란 정부는 2008년 12월 TCI의 지분 5%를 Tehran 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함으로써 TCI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1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으로 알려진 투자회사 Etemad Mobin은 TCI의 지분 50.01%를 78조 리알에 취득하여, TCI는 사실상 국영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³⁾

○ 이란 혁명수비대는 경제제재 해제 후에도 여전히 서방의 제재대상으로, 현 상황에서 TCI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전망은 다소 불확실하다고 분석됨. 아울러 TCI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MCI도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됨.⁴⁾

○ TCI는 사실상의 국영기업이자 이란의 유선전화 부문의 독점 사업자로서, 동사의 사업전략은 국가적 광통신망의 개발 및 농촌/지방 지역의 통신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란이동통신회사(MCI) : 이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 1992년 이란 최초의 이동통신 기업으로 설립된 MCI는 TCI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2015년 9월 기준 7,439만 명의 가입자(선불제 5,663만 명, 후불제 1,776만 명)를 보유하여 59.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이란 제1의 이동통신 기업임.

○ MCI는 2015년 상반기에 3G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5년 9월 기준 동사의 3G 서비스 가입자는 총 702만 명(선불제 378만 명, 후불제 3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MTN Irancell : 이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2위

○ MTN Irancell은 2005년 남아공의 통신기업 MTN Group과 이란전력개발회사(IEDC) 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으며, MTN Group이 49%, IEDC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IEDC는 이란 정부 산하 이란전자산업기구(IEI)와 자선재단인 Mostazafan Foundation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므로, MTN Irancell도 일정 부분 이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판단됨.

○ 현재 MTN Irancell의 경영구조는 MTN Group과 이란 정부측의 협의에 따라 CEO는 IEDC측 인사가, COO와 CFO는 MTN Group측 인사가 맡고 있음.

3) 현재 이란 정부는 TCI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음.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부의 지분을 합계는 69.9%임.

4) 단, TCI와 MCI는 서방의 제재대상 기업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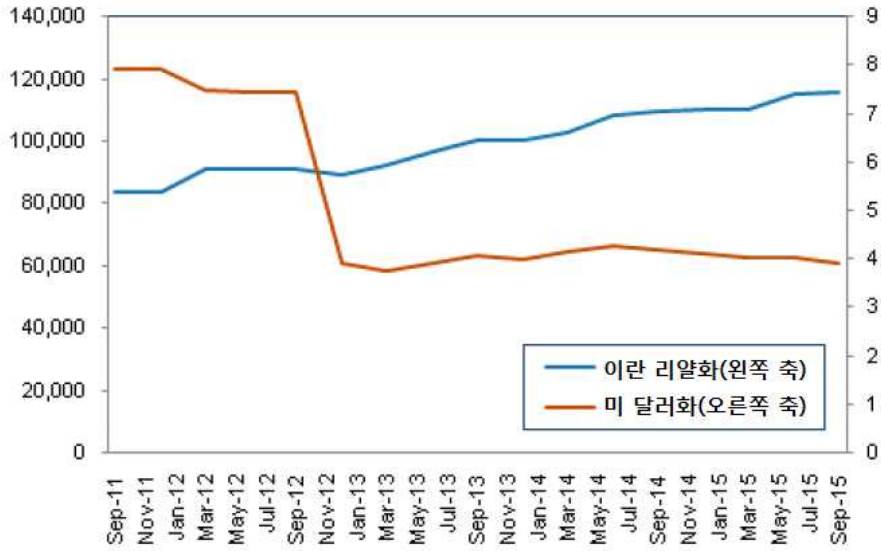
- MTN Irancell의 사업권 유효기간은 15년이며, 2회에 걸쳐 각 5년씩 총 10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 MTN Irancell은 3억 유로의 사업허가수수료를 이란 정부에 지불하였으며, 매년 수익의 28.1%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이란측에 지급하고 있음.
- MTN Irancell은 2015년 9월 기준 4,81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란 이동통신 시장에서 3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이란 제2의 이동통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울러 동사는 2014년 8월 3G 서비스 및 12월 4G 서비스를 각각 개시하여, 2015년 9월 기준 동사의 3G/4G 서비스 가입자는 총 1,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MTN Irancell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등록, 가입 후 15분 내 개통 등 대고객 서비스의 개선에도 노력 중이며, 향후 5년 간 이란 내 1,000개 도시들을 커버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Ⅲ. 산업의 최근 동향

□ MTN Irancell, 가입자별 평균수익(ARPU) 꾸준히 증가

- MTN Irancell은 현재 이란의 이동통신 기업들 중 정기적으로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동사의 가입자별 평균수익(ARPU)은 2013년 12월 100,381리얄에서 2015년 9월 116,025리얄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단, 미 달러 환산액은 이란 리얄화의 미 달러 대비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2012년 하반기에 폭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4달러대에 그쳤음.
- MTN Irancell의 ARPU 증가세 유지는 2014년 하반기의 3G/4G 서비스 개시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동사의 2015년 상반기 데이터 서비스 부문 이익은 전년 대비 85%나 증가하였음.
- 다만, MCI가 2015년 상반기에 3G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6년 중 MVNO(가상이동통신망) 서비스가 도입될 계획임을 감안하면 ARPU 증가세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6> MTN Irancell의 ARPU 추이 (2011~15년)



자료: M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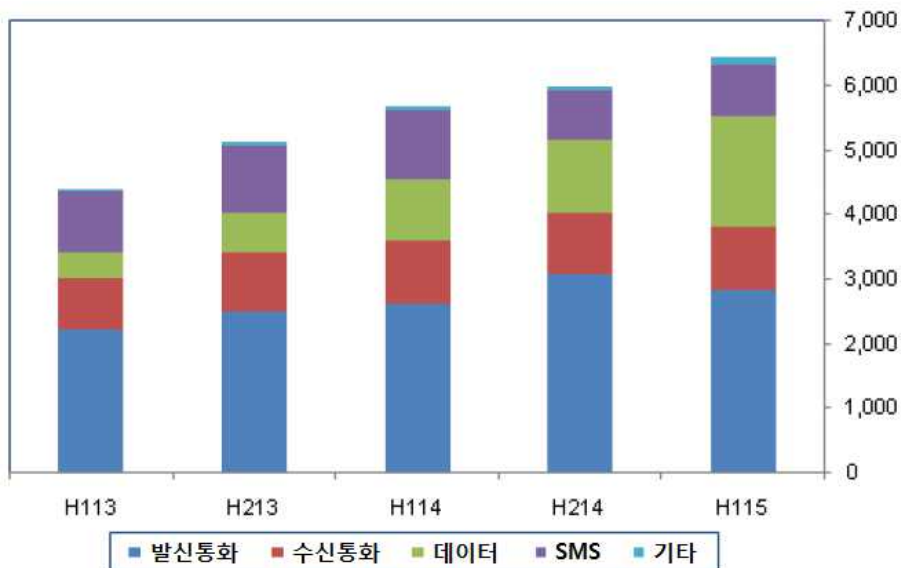
□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 증가 추세

○ MTN Irancell의 반기별/부문별 수익 추이 자료는 이동통신 기업의 수익에서 발신통화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데이터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발신통화 부문의 수익 감소는 점점 더 많은 가입자들이 WhatsApp 등 보다 저렴한 IP 기반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MTN Irancell의 반기별/부문별 수익 추이*

단위: 백만 남아공 란드화**



* MTN Group의 합작지분 49%에 대한 수익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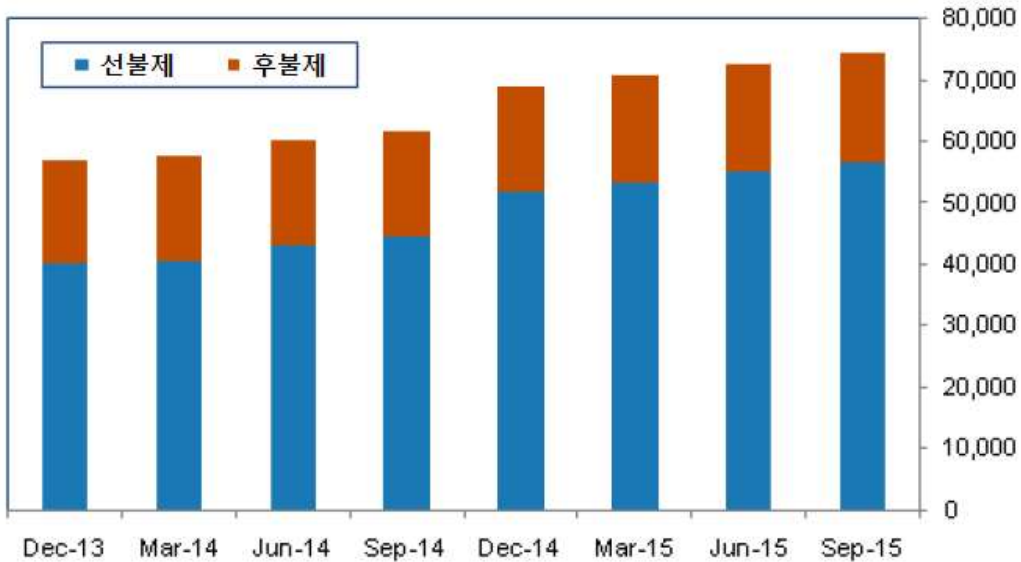
** MTN Group은 남아공 기업으로, 대외적으로도 란드화 표시 자료를 제공

자료: MTN

□ MCI, 후불제 서비스의 비중 증대 전망

- MCI의 2015년 자료는 동사의 성장이 선불제 서비스 가입자 수의 증대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보여줌. 이는 MCI의 신규 가입자가 선불제를 선호하는 농촌/지방에 주로 집중된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후불제 서비스 가입자 수도 동사의 전체 가입자 수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 전체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임.
- 특히 2015년 상반기 3G 서비스의 개시는 데이터 공유 패키지, 가입시 스마트폰 제공 패키지 등과 결합되어 후불제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 수 증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8> MCI의 가입자 수 추이 (선불제·후불제 구분)



자료: MCI

□ 초고속 인터넷 신규 사업권 입찰 실시 예정

- 이란 통신규제국(CRA)은 2015년 10월 주파수 대역 2.3GHz, 2.6GHz 및 3.5GHz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 주파수 대역들은 4G/LTE 서비스 제공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2.3GHz와 2.6GHz 대역은 기존의 유선통신 기업들에게, 3.5GHz 대역은 모든 입찰자들에게 개방될 예정임.

□ FTTx 서비스의 도입 계획은 현재 지연 중

- 이란의 ISP들 중 하나인 Iranian Net사는 2013년 6월 FTTx⁵⁾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란 정부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128kbps로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를 예정보다 지연된 2014년 9월에야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FTTx 인프라 구축과 Iranian Net사의 서비스 개시도 아울러 지연되고 있음.
- 2015년 6월 Iranian Net사는 향후 2017년까지 Mashhad, Tehran, Shiraz, Karaj, Qom, Isfahan, Tabriz 등의 주요 도시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IPTV 시장은 이란 정부의 간섭으로 성장에 한계

- 이란 정보통신부는 2013년 12월 IPTV⁶⁾ 제1단계 서비스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6개 주(州)에서 1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IP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2016년 4월 현재까지 동 계획의 세부 내역은 여전히 불명확함.
- 이란의 IPTV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TV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이란 정부의 검열과 간섭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IPTV 시장의 성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은 통신시장의 주요 성장동력 제공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이란 정부의 5개년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오고 있음.
- 이란 정부는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21년)을 통해 전자 정부(e-government), 전자교육(e-education), 전자상거래, 인터넷 학습과 같은 ICT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코자 하며, 이는 이란의 통신시장에 중요한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5) fiber-to-the-x의 약자로,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전화망을 대체하는 광섬유 네트워크 구조를 통칭함. 끝의 x는 광섬유 케이블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FTTN(node/neighborhood), FTTB(building), FTTH(home)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됨.

6)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함.

〈표 2〉 이란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21년) 중 정보통신 분야

부 문	주요 내용
정보기술 및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개발 • 국가정보 네트워크 개발 및 보완 • 이란의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통신 및 정보교환의 역내 중심지로 변모 •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보기술 및 통신 선도국가로 도약

자료: KOTRA 테헤란 무역관(2015.7.14), “이란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21)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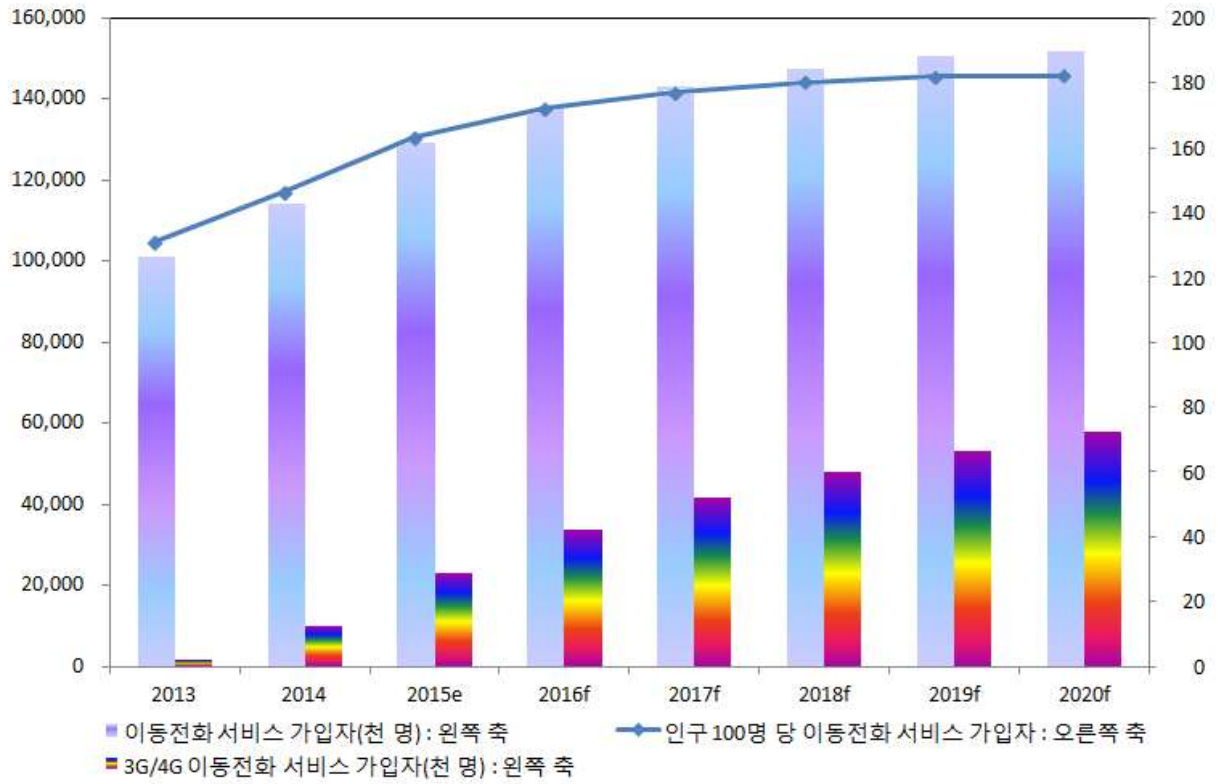
IV. 향후 전망

1. 이동통신 부문

□ 3G/4G 서비스의 확산으로 보급률 상승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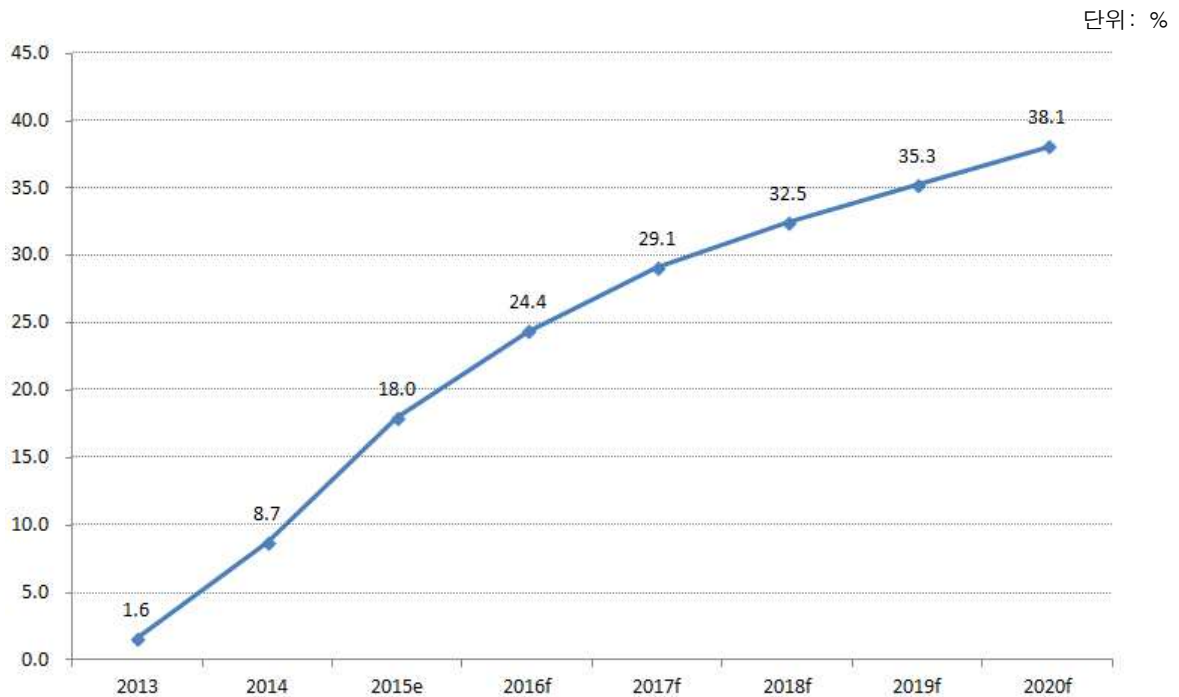
- 이란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3G/4G 서비스의 본격 확산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2015년 1억 2,905만 명에서 2020년 1억 5,196만 명으로 1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 통신규제국(CRA)은 2016년 7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MNP)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도시 지역에서도 기업들의 가입자 수 증대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이란의 이동통신 시장은 2016~20년 기간 중 3.3%의 CAGR를 시현하며 2020년 말 보급률이 182.2%에 달하는 한편, 3G/4G 서비스의 점유율이 38.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보다 저렴한 가격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도입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데이터 통신 사용량의 증가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 아울러 스마트폰 판매액과 판매대수도 2016~20년 각각 16.0% 및 24.2%의 CAGR를 시현하며 2020년 35.0억 달러 및 1,776.2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단, 이란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비롯한 IT기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제재해제의 효과는 위축될 것임.
- 3G/4G 서비스의 확산은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성장에도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란 정부도 이를 중시하여 초고속 무선 인터넷 회선 재판매(wholesale wireless broadband)의 도입을 추진 중임.

<그림 9> 이란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추이 및 전망



자료: BMI

<그림 10> 이란의 3G/4G 서비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전망



자료: BMI

- 데이터 중심 서비스 도입, 외국인 고객의 증가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반이 될 전망
 - MTN Irancell의 Zoom(TV, 동영상), Rhythm(음악), Gisheh(항공권 및 각종 티켓 구매), Ketabkhan(전자책, 오디오북) 등 데이터 중심 서비스의 도입은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증가와 데이터 서비스 부문의 수익 성장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 아울러 경제제재 해제 후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는 이란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따른 외국기업 지사 및 외국인 체류자들의 증가는 로밍 서비스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이란 이동통신 기업들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은 이동통신 시장의 고속성장을 자극할 전망
 - 이란 정부는 2015년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에 의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MVNO 사업권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중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9월 이란 정보통신부는 금번 입찰에 모두 51개사가 응찰하였으며, 이 중에는 영국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MVNO 기업 Lycamobile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음.
 - 이란 정보통신부는 최소한의 조건⁷⁾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나, 동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소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각 이동통신망사업자(MNO)가 최소 2개의 MVNO와 통신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MVNO 서비스의 개시는 공급자의 다양화로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는 한편, 3G/4G 서비스의 고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7) 응찰자의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 예상 순수익 1,000억 리알 이상, ② 이란측 합작투자자의 예상 연간 매출액 3,000억 리알 이상, ③ 30만 명 이상의 가입자 기반 보유 예상, ④ 민간투자자의 최소지분율 20%, ⑤ 유선통신 부문 사업권자의 최소지분율 20%, ⑥ 외국측 투자자가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자로서 최소 2.5년 이상의 업력 보유, ⑦ 합작법인이 이란 내에 등록되며, 이란측 지분율이 최소 51%.

가상이동통신망사업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ion; MVNO)

- MVNO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의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함.
- MVNO는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기반시설(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지 않음.
 - 대신 그러한 시설을 보유한 MNO로부터 여분의 주파수 대역폭을 임대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를 맺고 자체 브랜드와 요금체계, 서비스 등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동통신 가입자를 별도로 모집함으로써 이동통신 사업을 함.
- MVNO는 다른 통신회사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사업자와 사업방식이 동일하며,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대량 구매하여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선 재판매와 구분됨.
 - 회선 재판매는 가입자가 판매자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의 상표 및 서비스, 요금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MVNO는 독자적인 서비스나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음.
- MVNO는 통신망 관리비 및 유지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낮출 수 있으며,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시켜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유선통신 부문

□ 유선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따라 장기적 위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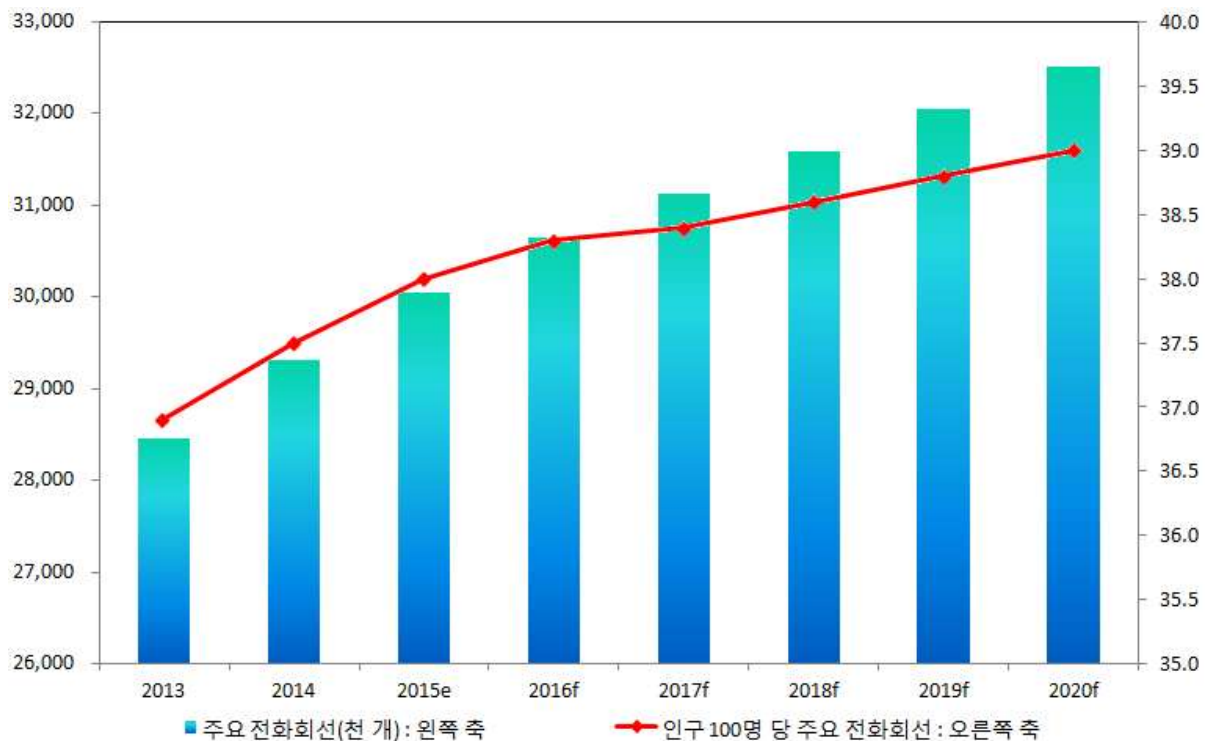
- 이란의 유선전화 부문은 2016~20년 기간 중 1.6%의 CAGR을 시현하는 데 그치며, 2020년 말에는 유선전화 보급률이 39.0%, 주요 전화회선 수가 32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격화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인하와 가입자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유선통신 부문은 장기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TCI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음.

<그림 11> 이란의 유선통신 부문 추이 및 전망



자료: BMI

<그림 12> 이란의 주요 전화회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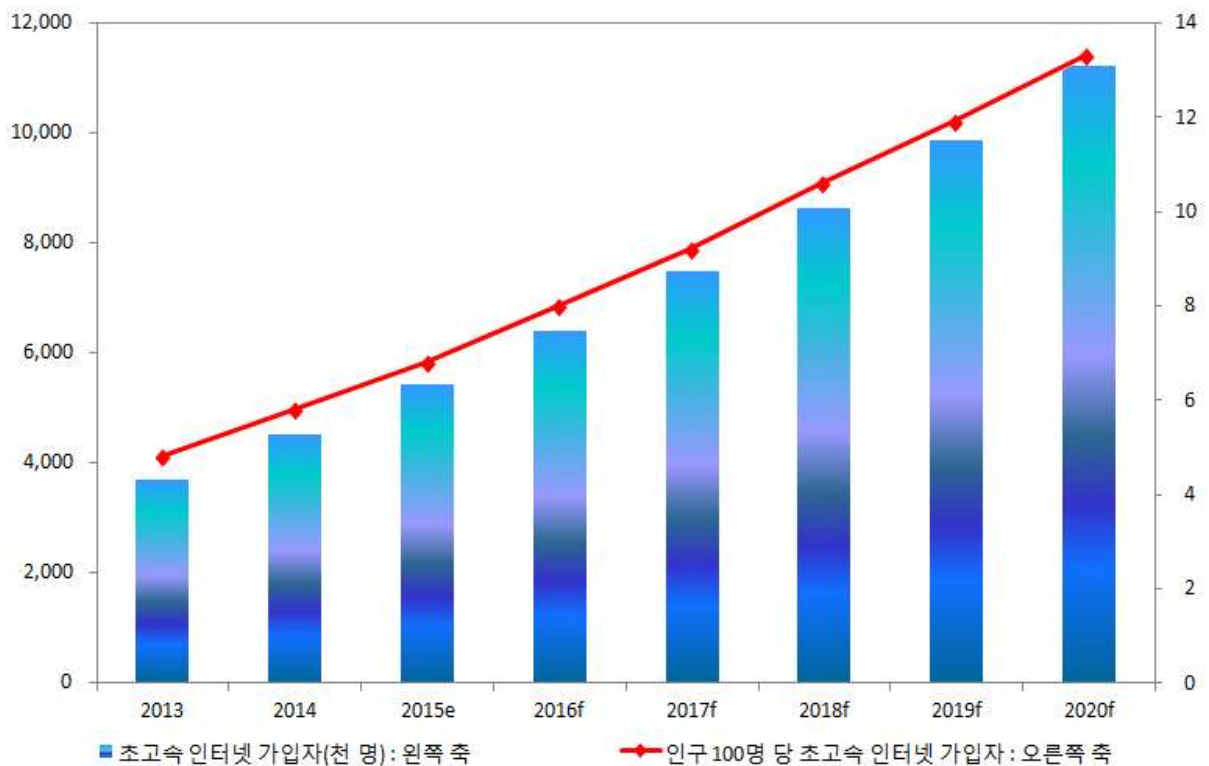


자료: BMI

□ 초고속 인터넷: 장기적으로 보급률 상승 전망

- 이란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2016~20년 기간 중 15.5%의 CAGR을 시현하며 2020년 말 가입자 수가 1,113만 명에 이르러 13.3%의 보급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초고속 인터넷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 전망은 높은 인터넷 접속 비용과 좁은 대역폭(bandwidth)에 기인하지만, 인터넷 접속 자체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도 높은 통제와 감시도 개인들의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임.
 - 그러나 한편으로 이란 정부의 전자정부(e-governance) 및 전자교육(e-education) 시스템 도입 추진은 장기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TCI는 초고속 광섬유 통신망 설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음.

<그림 13> 이란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추이 및 전망



자료: BMI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사회 인프라 구축 추진

- 현재 이란 정부는 제6차 5개년 개발계획(2016~21년)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 네트워크의 개발 및 보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e-governance), 전자교육(e-education),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 분야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전자정부 분야는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이란의 온라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란에의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은 연관 기술, 인력 및 기자재의 동반 수출은 물론, 향후 인근 국가들로의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에도 교두보로 기능할 수 있음.

□ 초고속 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등 경쟁우위 분야에의 진출 모색

- 이란 정부가 보급률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는 상술한 전자정부 등의 시스템 구축에도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임.
- 초고속 인터넷은 우리 기업들이 특히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로, 이란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결합이 이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인근 국가들로의 패키지 진출도 가능할 것임.
- 한편, 중견 규모의 통신기업들은 대규모 초기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란 MVNO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점유율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